

사회적 긍정정서와 친화성이 조망수용과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positive affect and agreeableness on perspective taking and positive coping

심서영* · 손영우
Olivia S. Sim* · Young Woo Sohn*†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bstract

Common theories of affect underscore valence and arousal dimensions or specific emotion. However, given the role of affect in transacting social behavior, sociality may determine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e to positive stimuli.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positive affect and perspective taking as well as positive coping. One potential moderating effect of agreeableness on these relations was also examined. In two experiments, film segments induced socially and non-socially generated positive affects. We hypothesized and found that positive affect associated with sociality would enhance perspective taking ability and positive coping, while non-social positive affect would not. Moreover, these effects varied as a function of the level of agreeabl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non-social dimension influenced which positive affects elicited perspective taking and positive coping,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subjective emotional valence or arousal.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as they point toward a previously overlooked relation linking sociality to positive affect.

Key words : social positive affect, sociality, positive affect, perspective taking, positive coping, agreeableness

요약

본 연구는 긍정정서를 사회성 축에 따라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로 나눌시 조망수용능력과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관계가 성격변인인 친화성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1과 2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집단은 비사회적 긍정정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망수용능력이 높고, 회피/체념 대처전략보다 긍정적 대처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에서는 성격변인인 친화성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이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에 비해 친화성이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에서는 친화성의 조절효과가 없었다.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간의 차이 및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긍정정서, 사회성, 긍정정서, 조망수용, 긍정적 대처, 친화성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플러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심리과학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교신저자 :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ysohn@yonsei.ac.kr

TEL: 02-2123-2444

FAX: 02-365-4354

1. 서론

1.1 사회성 차원으로 구분한 정서

기쁨, 만족감, 즐거움이 가득한 방과 분노, 슬픔, 공포가 가득한 방이 나눠져 있다고 하자. 어느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을 택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정정서보다는 긍정정서를 느끼기를 원한다. 그런데 긍정정서는 단순히 그 순간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만은 아니다. 신체적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Cohen, Doyle, Turner, Alper, & Skoner, 2003), 수명을 연장시켜주며(Danner, Snowdon, & Friesen, 2001),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준다(Cohen, Doyle, & Turner, 2003). 인지적 측면에서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고(Estrada, Isen, & Young, 1997), 창의성이 증대되며(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사고프로세스가 유연해지고, 정교화 된다(Ashby, Isen, & Turken, 1999). 그러나 정서를 긍정정서, 부정정서로만 나누는 것은 정서의 특징을 정확히 살펴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valence)와 각성(arousal) 수준, 두 축으로 정서를 구분하여 연구되어왔고(Russell & Barrett, 1999), 그 결과 긍정정서의 다양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서가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슬픔과 역겨움을 비교한 연구가 그러하다(Schnall et al., 2008). 동일하게 부정정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역겨움 집단의 참가자들이 도덕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역겨움, 분노, 경멸 모두 같은 부정정서이지만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는 다름을 밝혀내었다(Haidt, 2001; Haidt & Graham, 2007; Uhlir, Lamm, & Singer, 2012). 즉, 동일한 정서기에도 불구하고, 각 정서가 지니는 세부적 특징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Lerner & Keltner, 2000; Smith & Ellsworth, 1985).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서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지닌 원초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의 핵심기능중 하나는 사회적 생존을 돕는 것이다(Fisher & Manstead, 2008).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소속욕구를 채우고자(Baumeister & Leary, 1995) 타인과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한다. 정서는 두 경우에서 모두 작용하는데, 타인과 교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협동영역에서는 사랑, 행복감과 같은 긍정정서가 많이 사용되고,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을 이겨야 하는 경우인 경쟁영역에서는 분노, 경멸과 같은 부정정서가 많이 사용된다(Fischer & Manstead, 2008; Niedenthal & Brauer, 2012).

때문에 정서가 가진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사회성(sociality)유무로 정서를 살펴봐야한다는 주장도 언급되고 있다(Fridland, 1994; Hess, Banse, & Kappas, 1995).

실제로 사람의 뇌를 fMRI로 촬영한 연구에서 동일한 정서를 느꼈을지라도 유도된 사회성 유무에 따라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름이 밝혀졌다(Britton et al., 2006; Sakaki, Niki, & Mather, 2012; Vrticka, Sander, & Vuilleumier, 2011).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비디오시청을 통해 비사회적으로 유도된 긍정정서(이하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그룹참가자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신체부위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뇌섬엽(posterior insula)과 주의, 반응 억제,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한 부분인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가 더 활성화되었다. 반면, 즐거운 코미디 비디오 시청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도된 긍정정서(이하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그룹참가자의 경우에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사회적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편도체, 얼굴의 특징과 정서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장하는 측두엽 부위인 상측두이랑(superior temporal gyrus), 정서와 일화적 기억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후측대상회(posterior cingulate)등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체적 반응 또한 사회적 정서 혹은 비사회적 정서인지에 따라 심박수, 피부 전도반응에 차이가 발견되었다(Britton et al., 2006). 문화별 정서차이를 살펴본 연구(Kitayama, Mesquita, & Karasawa, 2006)에서도 사회적으로 관련있는 정서(예; 친밀감)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련없는 정서(예; 자부심)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같은 정서를 가지는 정서일지라도 사회성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Frewen et al., 2010; Goossens et al., 2009; Hariri, Tessitore, Mattay, Fera, & Weinberger, 2002; Norris, Chen, Zhu, Small, & Cacioppo, 2004; Sander, Koenig, Georgieff, Terra & Franck, 2005; Scharpf, Wendt, Lotze, & Hamm, 2010), 정서의 속성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서가, 사회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회성 축으로 나누어서 정서를 살펴본 기존연구들도 뇌의 활성화 영역 차이만 살펴보았을 뿐, 실제 삶에서 다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정서를 사회성에 따라 나누고 주관적 안녕감 등을 관찰했던 Kitayama, Mesquita와 Karasawa(2006)의 연구 역시 문화에 더 초점을 두었기에 '사회성'의 차이에 따른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2 사회적으로 유도된 긍정정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에 따라 긍정정서를 구분하였을 시, 실제 삶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성에 따라 구분된 긍정정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에 각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Britton et al.(2006)은 비사회적인 상황을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이며 생물학적인 욕구가 주가 되는 상황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상황은 사회적 관계구조, 의도, 의미 등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실시할 때도 비사회적 상황에서는 본능적 욕구를 강조하고자 피자광고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상황에서는 코미디 필름을 사용하였다. 즉, 본능과 사회성을 각각 한 축으로 두고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사회적/비사회적 상황에 따른 얼굴 정서표현에 대해 연구한 Fridlund(1991)는 사회성을 혼자 있는 경우와 타인과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도덕적 의사결정, 웃음,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성을 연구한 연구진들도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 쇼프로, 만화 등 동일한 자극의 비디오, 오디오 자극을 보여주고 ‘비사회성’은 홀로 자극을 보는 상황, ‘사회성’은 친구와 함께 자극을 보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Devereux, Ginsburg, 2001; Hess, Banse, & Kappas, 1995; Strohminger, Lewis, & Meyer, 2011). 본 논문 역시 사회성 축을 중심으로 긍정정서를 살펴보고자 하기에 Fridlund(1991)의 정의를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긍정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사회적 긍정정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긍정정서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 중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여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3 사회적 긍정정서와 조망수용능력

긍정정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은 Fredrickson(2001)의 ‘확장-수립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이다. 본 이론은 긍정정서가 사람의 생각,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자원을 수렴하도록 촉진시킨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 특징은

앞서 언급한 신체적 건강이나 인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례로 긍정정서를 느끼면, 사회적 지각이 확장되어 타인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다. 또,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낮게 인지하여 자신의 자아개념과 친한 친구의 자아개념을 중첩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크다(Fredrickson & Cohn, 2008; Ong, Burrow, & Fuller-Rowell, 2012; Waugh et al., 2006;). 아울러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은 독립적 자아보다 상호의존적 자아로 자신을 더 표현하기도 하였다(Kitayama, Mesquita, & Karasawa, 2006). 이렇게 긍정정서는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접근행동을 촉진시키고(Cacioppo, Priester, & Berntson, 1993), 그 결과 증가한 대인신뢰, 이타심 등 축적된 사회적 자원으로 인해 다시 또 긍정정서가 발생되는 상향나선고리를 가지고 있다(Burns et al., 2008; Dunn & Schweitzer, 2005; Isen, 1987).

긍정정서가 지닌 사회적 특징들은 비사회적 긍정정서일 때보다 사회적으로 유도되어 형성된 긍정정서일 때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언급된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긍정정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중 하나로 예측되는 변인은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이다. 조망수용이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해보거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Galinsky, Ku, & Wang, 2005). 긍정정서를 느끼면 더 개방적으로 사회적 정보처리를 하게 되어 조망수용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연구는 이미 존재한다(Dovidio et al., 1995; Nelson, 2009; Waugh & Fredrickson, 2006). 본 연구는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낄수록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더 적게 지각하고 상호의존적 자아를 더 중시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나와 타인의 심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중첩시켜 보는 조망수용능력(Davis et al., 1996)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사회적 긍정정서와 긍정적 대처

사회적 긍정정서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영역은 대처방식이다. 스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대처방식을 택하는데, 대처는 크게 긍정적 대처와 회피/체념적 대처로 나뉜다(Burns et al., 2008). 2002년, Fredrickson과 Joiner는 긍정정서가 확장된 대처방식을 예측하고, 확장된 대처방식은 다시 긍정정서를 발생시킨다는 상향나선관계를 밝혀낸 바 있고, 또 다른 연구진은 이를 반복 검증하면서 긍정정서와 긍정적 대처간의 연합을 견고

하게 설명하였다(Burns et al., 2008; 김초록, 2010). 긍정정서가 긍정적 대처와 연합이 된 연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발생시 이를 회피하기보다 긍정정서에 의해 형성된 확장-수렴이론에 의거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 대처 방안 또한 많이 탐색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긍정정서를 느끼면 친사회적인 측면이 증가하는데, 긍정적 대처 방안에도 친사회적인 세부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arlson, & Miller, 1987;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긍정적 대처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개로 나뉜다. 문제를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한번에 하나씩 집중하여 해결하는 논리적 분석(logical analysis),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다른 사람의 정보, 조언을 구하는 지지추구(seeking guidance and support),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뜻하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타인을 돕는 대체보상추구(seeking alternative rewards)가 그러하다(박영남, 2003). 살펴보면 지지추구, 대체보상추구 등에 사회적 측면이 많이 내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대처방안에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는 건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볼 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속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을 느끼기 위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Maslow, 1968; Galinsky, Ku, & Wang, 2005). 따라서 사회적 측면을 함유한 긍정적 대처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낄 경우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느꼈을 때보다 긍정적 대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5 성격변인의 조절효과

Bandura는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였다(Bandura, 1986). 그는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특질과 사회적 맥락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받는다고 말한다. 일례로, 불안한 사람은 위협잠재성이 있는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Eysenck et al., 1987). 따라서 세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이에 따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행동반응이 나타난다. 동일하게,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가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여 조망수용, 긍정적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격변인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리적 특질인 성격이 사회적 긍정정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

건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연구는 외향성(extroversion),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 등 BIG 5라는 5요인 이론(Costa & McCrae, 1985)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사회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친화성에 주목하여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가 조망수용,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친화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Goldberg, 1981; 강은비, 2013). 그렇기 때문에 친화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이타적이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친화성의 하위 요인에 정서적 공감, 조망수용이 있다는 점이다(Mullet, Neto, & Riviere, 2005). 또한 공감, 조망수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성격변인도 친화성으로 나타났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Watson et al., 1994). 즉,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 관계가 친화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이 두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등 장점이 많지만(McCrae & John, 1992)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쟁해야하는 조직장면에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고 이를 피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로 인해 오히려 연봉,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Ng et al., 2005; Suls et al., 1998). 또한 공정하게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관대하게 직원들에게 규칙을 적용하여 조직성과에는 되레 흠을 만들기도 한다(Bernardin, Cooke, & Villanova, 2000). 요약하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논리적 분석, 문제해결상황에서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친화성의 이러한 특성은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으나 방향성은 예측하기 쉽지 않게 만든다. 긍정적 대처내의 하위요인중 사회적 측면에 속하는 지지추구, 대체보상추구 영역과 인지적 측면에 속하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문제해결 영역에서 각기 다른 조절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친화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망수용능력, 긍정적 대처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사회적 긍정정서를 경험한 사람은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경험한 사람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가설2.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 관계를 친화성이 조절할 것이다.
- 가설3. 사회적 긍정정서를 경험한 사람은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경험한 사람보다 긍정적 대처능력이 높을 것이다.
- 가설4.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 관계를 친화성이 조절할 것이다.

2. 실험 1: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

실험 1은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가 조망수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친화성이 이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1 실험방법

2.1.1 실험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63명의 학부생들이 수업의 참가방안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 문항에 성실히 답을 하지 않은 사람,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사람, 정서조작에 실패한 사람 14명의 자료를 제외한 49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3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세($SD=2.06$)이었다.

2.1.2. 실험도구 및 절차

실험은 사회적 긍정정서집단,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모든 실험참가자는 컴퓨터, 스피커, 종이와 놓인 방에 앉았다.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성격변인 설문지에 응답한 뒤, 각 집단에 할당되어 정서자극을 유도 받았고, 이후 정서조작여부,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답하였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사후설명서가 제공되었다.

긍정정서는 노래가사 받아쓰기, 노래 영상보기, 노래 영상관련 문제풀이 등 총 3단계를 거쳐 유도되었다. 실험 초반에 참가자는 연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

다. “지금부터 노래가사 받아쓰기를 하실 겁니다. 컴퓨터에서 한국노래가 3분 동안 나오는데, 최대한 받아쓸 수 있는 만큼만 받아쓰시면 됩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는 1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이후 그 노래가 나오는 공연 동영상을 컴퓨터로 보여주었다. 동영상을 다 본 참가자는 동영상 관련한 문제(예: 박명수의 블록버스터급 야심작은 무엇이었습니까?) 1분간 풀었다. 자극으로는 문화방송의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부른 ‘메뚜기월드’ 노래와 공연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사회성 구분은 참가자가 혼자 실험을 수행하느냐 혹은 지인과 함께 실험을 수행하느냐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긍정정서에 속한 참가자는 지인과 함께 실험에 참가하여 노래가사 받아쓰기, 동영상 시청, 문제풀이를 모두 함께 하였으며, 비사회적 긍정정서에 속한 참가자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수행하였다.

문제풀이를 마친 후에는 정서가(예; 동영상을 본 지금, 현재 당신의 감정상태를 0(가장 부정적/ 불쾌한/ 불편한) - 100(가장 긍정적/ 유쾌한/ 편안한)중 평가하여 아래 박스에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각성가(예; 동영상을 본 지금, 현재 당신의 감정상태를 0(가장 조용한/ 차분한) - 100(가장 깜짝 놀란)중 평가하여 아래 박스에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를 각각 단일문항으로 10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sta와 McCrae(1992)의 60문항 성격측정(NEO PI-R)중 친화성을 측정하는 12문항(agreeableness)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참가자는 각 문항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친화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2였다. 종속변인인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avis(1980)가 사용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친구들의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해 봄으로써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총점이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62로 나타났다.

2.2. 실험결과 및 논의

정서조작 확인

긍정정서가 유도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서가를 묻는 문항을 확인하였다. 정서가는 100점 척도로서 50

점을 중립정서로 삼고 감정값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긍정정서 집단($M=82.12$, $SD=8.38$)은 중립정서가인 50점을 상회하는 80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t(25)=19.52$, $p<.01$.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M=81.70$, $SD=7.00$)도 중립정서가인 50점을 상회하는 80점 이상을 나타내, $t(22)=21.69$, $p<.01$, 두 집단 모두 긍정정서 조작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별 정서가, 각성수준 차이

사회적 긍정정서집단과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간에 정서가와 각성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두 집단 간에는 정서가와 각성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05$. 이는 각 집단별로 종속변인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정서가, 각성수준 차이에 비롯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적 긍정정서, 비사회적 긍정정서의 조망수용능력 차이 및 친화성의 조절효과

긍정정서의 사회적 유무에 따라 참가자들이 조망수용능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 관계가 성격요인인 친화성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에 독립변수로 긍정정서의 사회적 유무 조건과 친화성 고저수준을 넣고, 종속변인으로는 조망수용능력을 설정하였다. 친화성수준은 정서조작 이전에 측정한 친화성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높은 친화성 집단(23명)과 낮은 친화성 집단(26명)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유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여, 사회적으로 유도된 집단($M=18.92$, $SD=3.29$)이 비사회적으로 유도된 집단($M=16.87$, $SD=3.12$)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았다, $F(1, 45)=5.29$, $p<.05$. 또한 친화성이 높은 집단($M=18.91$, $SD=2.71$)이 친화성이 낮은 집단($M=17.11$, $SD=3.65$)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았다, $F(1, 45)=5.09$, $p<.05$. 마지막으로 사회적유무로 나눈 정서조작집단과 친화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45)=4.37$, $p<.05$. 그림 1을 보면, 비사회적 긍정정서가 사회적 긍정정서일 때에 비해 친화성의 수준에 따라 조망수용능력의 정도가 더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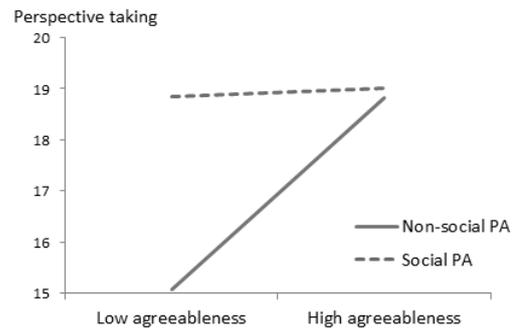


Figure 1. Mean scores of perspective taking as a function of sociality of positive affect and agreeableness

실험 1에서는 긍정정서를 나누어 사회적 유무에 따라 유도할 경우 조망수용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긍정정서가 유도되었을 때 비사회적 긍정정서가 유도되었을 때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긍정정서의 사회적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 관계를 친화성이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 2 역시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이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에 비해 친화성이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 2: 긍정정서의 사회적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

실험 2는 긍정정서의 사회적 유무가 긍정적 대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친화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3.1. 실험방법

3.1.1 실험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83명의 학부생들이 수업의 참가방안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 문항에 성실히 답을 하지 않은 사람,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사람, 정서조작에 실패한 사람 8명의 자료를 제외한 75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가 37명, 여자가 38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3세($SD=1.84$)이었다.

3.1.2 실험도구 및 절차

성격변인측정, 정서유도조작 등은 모두 실험1과 동일

하게 진행되었으며, 종속변인으로는 대처전략을 측정하였다. Moss(1993)가 개발하고, 박영남(2003)이 국내타당화한 대처방식척도(Coping Response Inventory, CR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논리적 분석(예;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검토한다), 긍정적 재평가(예; 문제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리라 생각한다), 지지추구(예; 문제에 대하여 친구와 의논한다), 문제해결(예;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추진한다), 대체보상 추구(예;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을 도우려한다), 인지적 회피(예;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수용과 체념(예; 나는 문제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방출(예; 마음을 풀기 위하여 고함지른다) 등 8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는데, 이중 첫 5개 항목은 긍정적 대처(positive coping, PC), 나머지 3개 항목은 회피/체념적 대처(avoidance/resignation coping, A/RC)로 구분된다(Burns et al., 2008). 총 4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4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3= 항상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3, 부정적 대처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3.2. 실험결과 및 논의

정서조작 확인

실험1에서는 참가자에게 정서조작하려는 의도를 알리지 않고자 정서조작 전 기저정서(baseline)수준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2에서는 본 자극으로 인해 긍정정서가 유도되었는지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기저정서를 측정 후 긍정정서를 유도하였고, 이후 다시 정서를 측정하였다. 정서조작확인을 위해 사용한 문항은 모두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 분석결과, 사회적 긍정정서집단과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 모두 기저정서와 정서조작 후 정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즉, 사회적 긍정정서 집단($M = 80.68$, $SD = 11.11$)은 기저정서 때($M = 56.05$, $SD = 17.50$)보다 정서조작 후 더 높은 긍정정서를 나타내었다, $t(40) = -7.86$, $p < .01$.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M = 75.60$, $SD = 12.29$), 역시 기저정서 때($M = 55.15$, $SD = 16.94$)보다 정서조작 후 더 높은 긍정정서를 나타내었다, $t(33) = -7.90$, $p < .01$.

각 집단별 정서가, 각성수준 차이

사회적 긍정정서집단과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 간에 정서가, 각성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

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두 집단 간에는 정서가, 각성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이는 각 집단별로 종속변인에 차이가 나타날 경우, 정서가, 각성수준 차이에 비롯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적 긍정정서, 비사회적 긍정정서의 긍정적 대처 차이 및 친화성의 조절효과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에 따라 참가자들이 긍정적 대처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 관계가 성격요인인 친화성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에 독립변인으로 사회성 유무 조건과 친화성 고저수준을 넣고, 종속변인으로는 긍정적 대처를 입력하였다. 친화성수준은 정서조작 이전에 측정한 친화성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높은 친화성 집단(35명)과 낮은 친화성 집단(40명)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 유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여, 사회적으로 유도된 집단($M = 57.46$, $SD = 6.57$)이 비사회적으로 유도된 집단($M = 50.15$, $SD = 7.59$)보다 긍정적 대처능력이 높았다, $F(1, 71) = 19.29$, $p < .01$.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도된 집단이 긍정적 대처내 하위요인 중 지지추구가 더 높았고, $F(1, 71) = 16.03$, $p < .01$, 대체보상추구가 더 높았으며, $F(1, 71) = 11.03$, $p < .01$, 긍정적 재평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71) = 7.99$, $p < .01$. 그 외 논리적 분석과 문제해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이러한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sub-factors of positive coping for social and non-social PA conditions in Experiment 2

Positive Coping	Social PA <i>M(SD)</i>	Non-social PA <i>M(SD)</i>
Seeking support	12.56(2.74)	10.06(2.57)
Seeking alternatives	9.76(2.37)	7.82(2.55)
Positive reappraisal	12.46(2.58)	10.68(2.77)
Logical analysis	10.88(1.79)	10.65(1.93)
Problem solving	11.80(2.05)	10.94(2.28)

한편, 친화성의 주효과는 없었으며,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친화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F_s < 1$.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친화성 고저수준에 따른 긍정적 대처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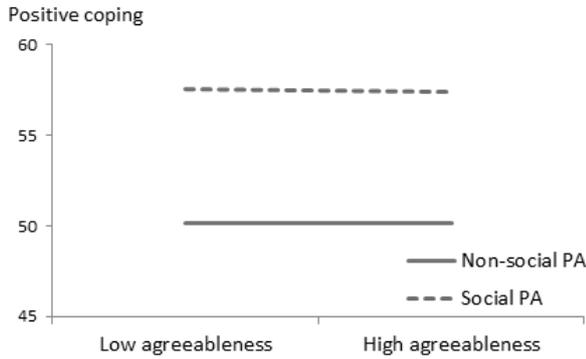


Figure 2. Mean scores of positive coping as a function of sociality of positive affect and agreeableness

사회적 긍정정서가 긍정적 대처뿐만 아니라 회피/체념적 대처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으로 회피/체념적 대처를 종속변인으로 넣고 동일하게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성 유무와 친화성 모두 주효과는 없었으며, 사회성유무로 나누는 정서조작집단과 친화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F_s < 1$.

실험 2에서는 사회성 유무에 따라 긍정정서를 나누어 유도할 경우 긍정적 대처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긍정정서가 유도되었을 때 비사회적 긍정정서가 유도되었을 때보다 긍정적 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정적 대처방안으로 여겨지는 회피/체념적 대처방안을 택하는 경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정서의 사회성이 단순히 모든 대처방안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긍정적 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러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친화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 관계를 친화성이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 4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정서와 조망수용능력,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특히 긍정정서를 사회성이라는 축 아래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 관계에서 성격변인인 친화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긍정정서가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로 구분이 되며 이

에 따라 조망수용능력, 긍정적 대처가 유의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긍정정서집단 참가자는 비사회적 긍정정서집단 참가자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고, 긍정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구사하였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에서 긍정정서를 단일개념으로 보고 진행해왔으나, 사회성 축에 따라 2개로 나뉘며, 이렇게 구분할 경우 긍정정서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대처전략을 구사할 시, 사회적 긍정정서가 긍정적 대처, 회피/체념적 대처 모두를 증가시켰다면 사회적 긍정정서의 유용성은 감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긍정정서는 비사회적 긍정정서 대비 긍정적 대처능력만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같은 긍정정서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려 형성된 긍정정서일 경우,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며,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에 당면했을 때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는 대처를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더 택한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적 긍정정서가 긍정적 대처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까닭은 지지추구, 대체보상추구와 같은 사회적 속성이 내포된 하위요인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끼면 인지적 하위요인으로 분류된 긍정적 재평가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별, 자연재해 등 위기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지지가 위기관련 긍정적 재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인지적 하위요인 중 하나인 문제해결능력도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긍정정서를 느낄 때 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긍정정서가 정서적, 인지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대처를 구사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긍정정서가 인지적 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정도(degree)를 정밀히 탐색해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 관심사는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에 있어 성격변인인 친화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먼저,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조망수용능력간의 관계에서 친화성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사회적 긍정정서일 때는 사회적 긍정정서일 때에 비해 친화성이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긍정정서’라는 상황의 특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이 일어나나, 확고하

거나 강한 상황에서는 성격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상황의 속성에 맞추어 사람들은 행동한다(Mischel, 1977). Mischel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결과를 해석해보면, 평소에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조망수용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나, 사회적 긍정정서집단에서는 사회적 긍정정서라는 환경이 지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친화성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친화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높은 타인조망수용능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긍정정서의 사회성 유무와 긍정적 대처간의 관계에서 친화성의 조절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친화성의 정서적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자신보다 타인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Digman, 1990).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바로 도움을 청하기보다 일단은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높은 친화성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자기주장’이 부적상관을 보인 기존연구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Hamid, 1994; Wit et al., 2002).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향한 높은 욕구가 자신의 문제를 대처할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셈이다. 덧붙여 친화성과 대처전략을 연구한 기존연구에서도 회피전략, 계획적인 문제해결, 정서조절 전략 등 거의 모든 대처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bner, 2001; O’Brien & DeLongis, 1996).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친화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긍정정서와 친화성의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요망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긍정정서를 보다 세분화시켰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존에는 긍정정서를 단일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긍정정서와 비사회적 긍정정서를 혼합측정하여 명확하게 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Fredrickson & Branigan, 2005).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성이라는 축에 따라 긍정정서가 사회적 긍정정서, 비사회적 긍정정서로 나뉠 수 있음을 밝혀 긍정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정서가 사회성 유무로 구분된 뒤 각 정서가 조망수용능력,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친화성이라는 성격변인과의 조절효과를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REFERENCES

Ashby, F. G., Isen, A. M., & Turken, A. U. (1999). A neuropsychological theory of positive affect and its

influence on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6, 529 - 550.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 1175-1184.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Beatty, J. C., Cleveland, J. N., & Murphy, K. R. (2001).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Contextual Performance in “Strong” Versus “Weak” Situations, *Human Performance*, 14, 125-148.

Bernardin, H. J., Cooke, D. K., & Villanova, P. (2000).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as predictors of rating lenienc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232-234.

Brebner, J. (2001).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317-327.

Britton, J. C., Phan, K. L., Taylor, S. F., Welsh, R. C., Berridge, K. C., & Liberzon, I. (2006). Neural correlates of social and nonsocial emotions: An fMRI study. *Neuroimage*, 31, 397 - 409.

Britton, J. C., Taylor, S. F., Berridge, K. C., Mikels, J. A., Liberzon, I. (2006). Differential subjective and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socially and non-socially generated emotional stimuli. *Emotion*, 6, 150-155.

Browne, M. W. (1968). A comparison of factor analytic techniques. *Psychometrika*, 33, 267-334.

Burns, A. B., Brown, J. S., Sachs-Ericsson, N., Plant, E. A., Curtis, J. T., Fredrickson, B. L., et al. (2008).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 and coping: Replication, extension, and initial exploration of neurochemical subst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360-370.

Cacioppo, J. T., Gardner, W. L.,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or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39-855.

Carlson, M., & Miller, N. (1987). Expla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mood and helping. *Psychological Bulletin*, 102, 91-108.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hen, S., Doyle, W. J., Turner, R. B. & Alper, C. M., Skoner, D. P. (2003). Emotional style and susceptibility to the common cold, *Psychosomatic medicine*, 65(4), 652-657.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nner, D. D., Snowdon, D. A., & Friesen, W. V.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04-813.
- Davis, M. H., Conklin, L., Smith, A., & Luce, C. (1996). The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13-726.
- Devereux, P. G., & Ginsburg, G. P. (2001). Sociality effects on the production of laughter.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28, 227-240.
- Digman, J.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 - 440.
- Dovidio, J., Gaertner, S., Isen, A., Rust, M., & Guerra, P. (1995). *Positive affect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C. Sedikides, J. Schopler, & C. A. Insko (Eds.), *Intergroup cognition and intergroup behavior*. Mahwah, NJ: Erlbaum.
- Dunn, J. R., & Schweitzer, M. E. (2005). Feeling and Believing: The influence of emotion on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36 - 748.
- Estrada, C. A., Isen, A. M., & Young, M. J. (199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decreases anchoring in reasoning among physicia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2, 117-135.
- Eysenck H. J. (1997). Personality and experimental psychology: the unification of psychology and the possibility of a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24-1237.
- Eysenck, M. W., MacLeod, C., & Mathews, A. (1987). Cognitive functioning and anxiety. *Psychological Research*, 49, 189 - 195.
- Fischer, A. H., & Manstead, A. S. R. (2008). The social functions of emotion. In M. Lewis, J.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 Emotion*, 19, 313 - 332.
- Fredrickson, B. L., & Cohn, M. A. (2008). Positive emotions. In M. Lewis, J. Haviland,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Fredrickson, B. L., & Joiner, T. (2002). Positive emotions trigger upward spirals toward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13, 172-175.
- Fridlund, A. J. (1991 b). Sociality of solitary smiling: Potentiation by an implicit aud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29-240.
- Fridlund, A. J. (1994). *Human facial expression: An evolutionary view*.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rewen, P. A., Dozois, D. J., Neufeld, R. W., Densmore, M., Stevens, T. K., & Lanius, R. A. (2011). Neuroimaging social emotional processing in women: fMRI study of script-driven imagery, *Social Cognitive Affective Neuroscience*, 6, 375-392.
- Galinsky, A.D., Ku, G., & Wang, C.S. (2005). Perspective-taking: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8, 109-125.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oossens, L., Kukolja, J., Onur, O. A., Flnk, G. R., Maier, W., Griez, E., Schruers, K., Hurlemann, R. (2009). Selective processing of social stimuli in the

- superficial amygdala, *Human Brain Mapping*.
- Greenglass, E., Fiksenbaum, L., & Eaton,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ocial support, functional disabili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Anxiety, Stress, & Coping, 19*, 15-31.
- Greenglass, E. R., Marques, S., deRidder, M., & Behl, S. (2005). Positive coping and mastery in a rehabilitation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8*, 331-339.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 98-116.
- Hambrick, E. P., & McCord, D. M. (2010). Proactive coping and its relation to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8*, 67 - 77.
- Hamid, P. N. (1994). Assertiveness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Chines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5*, 127-130.
- Hariri, A. R., Tessitore, A., Mattay, V. S., Fera, F., & Weinberger, D. R. (2002). The amygdala response to emotional stimuli : A comparison of faces and scenes. *Neuroimage, 17*(1), 317 - 323.
- Hess, U., Banse, R., & Kappas, A. (1995). The intensity of facial expression is determined by underlying affective state and social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280 - 288.
- Isen, A. M. (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203 - 253.
- Isen, A. M., Johnson, M. S., Mertz, E., & Robinson, G. G. (1985).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unusualness of word assoc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13 - 1426.
- Kang, E. (2013).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 in the relation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성격 요인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C. R. (2010). *Influences of Ego-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s on Positive Coping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정서가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Kitayama, S., Mesquita, B., & Karasawa, M. (2006).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890 - 903.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ment and choice. *Cognition and Emotion, 14*, 473-493.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 - 855.
- Martin, L. L., Abend, T., Sedikides, C. & Green, J. D. (1997) How would I feel if...? Mood as input to a role fulfillment 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242 - 253.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cCrae, R. R., & Costa, E T., Jr.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 McCrae, R.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 175-215.
- Mischel, W. (1977). On the future of personality measure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246-254.
- Mullet, E., Neto, F., & Rivière, S.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revenge, forgiveness, and self -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Nelson, D. (2009). Feeling good and open-minded: The impact of positive affect on cross cultural empathic responding.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53-63.
- Nelson, D. W., Klein, C., & Irvin, J. (2003). Motivational antecedents of empathy: Inhibiting effects of fatigu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37 - 50.
- Niedenthal, P. M., & Brauer, M. (2012). Social functionality of human emotion. *Annual Review of*

- Psychology*, 63, 259-285.
- Ng, T. W. H., Eby, L. T., Sorensen, K. L. & Feldman, D. C. (2005). 'Predic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58, 367 - 408.
- Norris, C. J., Chen, E. E., Zhu, D. C., Small, S. L., & Cacioppo, J. T. (2004). The interaction of social and emotional processes in the brai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6, 1818 - 1829.
- O'Brien, T. B., & DeLongis, A. (1996). The interactional context of problem-, emotion-, and relationship-focused coping: The rol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64, 775-813.
- Ong, A. D., Burrow, A. L., & Fuller-Rowell, T. E. (2012). Positive Emotions and the Social Broadening Effects of Barack Obama,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 424-428.
- Park, Y. N. (2003).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Moos' coping response inventory-Korean version(CRI-K) (Moos 대처방식척도 한국어판(CRI-K)의 심리측정 특성), *Keimyung Medical Journal*, 22, 168-177.
- Powers, K. E., Wagner, D. D., Norris, C. J., & Heatherton, T. F. (in press). Socially excluded individuals fail to recruit medial prefrontal cortex for negative social scene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 Russell, J. A., & Barrett, L. (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05-819.
- Sakaki, M., Niki, K., & Mather, M. (2012). Beyond arousal and valence: The importance of the biological versus social relevance of emotional stimuli.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12, 115-139.
- Sander, D., Koenig, O., Georgieff, N., Terra, J. L., & Franck, N. (2005). Emotional processes in schizophrenia: investigation of the evaluative component. *L'Encéphale*, 31, 672.
- Scharpf, K. R., Wendt, J., Lotze, M., & Hamm, A. O. (2010). The brain's relevance detection network operates independently of stimulus modality. *Behavioural brain research*, 210, 16-23.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096-1109.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trohminger, N., Lewis, R. L., & Meyer, D. E. (2011). Divergent effects of different positive emotions on moral judgment. *Cognition*, 119, 295-300.
- Suls, J., Martin, R., & David, J. P. (1998), 'Person - environment fit and its limits: agreeableness, neuroticism, and emotional reactivity to interpersonal confli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88 - 98.
- Tedeschi, R. G., Park, C. L., & Calhoun, L. G. (Eds.). (1998).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Psychology Press.
- Ugazio, G., Lamm, C., & Singer, T. (2012). The role of emotions for moral judgments depends on the type of emotion and moral scenario. *Emotion*, 12, 579-590.
- Vrticka, P., Sander, D., Vuilleumier, P., 2011.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brain responses to the valence and social content of visual scenes. *Neuropsychologia*, 49(5), 1067 - 1082.
- Watson, D., Clark, L. A., & Harkness, A. R. (1994). Structures of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8-31.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 - 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93 - 106.
- Witt, L. A., Burke, L. A., Barrick, M. A., & Mount, M. K. (2002). The interactive effects of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on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64 - 169.
- Ybarra, O., Lee, D. S., & Gonzalez, R. (2012).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Attenuate the Appeal of Choice. *Psychological Science*, 23, 1186-1192.
- Zarinpoush, F., Cooper, M., & Moylan, S. (2000). The effects of happiness and sadness on moral reason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 397-412.

원고접수: 2013.08.21

수정접수: 2013.10.07

게재확정: 2013.11.04